

1. 다음 <표>와 <보고서>는 2022년 A~E국의 우편 서비스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A~E 중 ‘갑’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표 1> 2022년 A~E국 우편 서비스 제공 방법별 인구 비율
(단위: %)

제공 방법 \ 국가	A	B	C	D	E	세계 평균
집으로 우편물 배달	19.2	88.4	94.0	97.3	96.6	85.8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부	80.8	11.6	6.0	2.7	3.4	14.2

<표 2> 2022년 A~E국 우편 시장 및 우체국 현황
(단위: %, 명, 개)

구분 \ 국가	A	B	C	D	E	세계 평균
2012년 대비 국내우편 시장 규모 성장률	-20.6	-12.0	-10.3	-1.1	1.8	-
우체국 직원 1인당 인구	17,218	3,606	2,364	2,673	387	1,428
인구 10만 명당 우체국 수	1.1	3.3	8.2	21.2	12.4	12.7

<보고서>

‘갑’국의 우편 서비스 보급 현황 및 성장률, 서비스 품질을 알아보기 위해 2022년 우편 서비스 제공 방법별 인구 비율, 2012년 대비 국내우편 시장 규모 성장률, 우체국 직원 1인당 인구 및 인구 10만 명당 우체국 수를 조사하였다.

먼저 2022년 우편 서비스 제공 방법별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갑’국은 ‘집으로 우편물 배달’ 비율이 세계 평균 및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부’ 비율보다 높았다. 한편 ‘갑’국의 2012년 대비 2022년 국내우편 시장 규모는 감소하였다.

‘갑’국의 우체국 직원 1인당 인구는 세계 평균인 1,428명보다 70% 이상 많아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인구가 많았다. 또한 ‘갑’국의 인구 10만 명당 우체국 수를 살펴보면 세계 평균보다 적어 우체국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다음 <표>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갑’국의 교원 2,000명(중학교 1,000명, 고등학교 1,000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편성·운영 시 학생 의사 반영에 관해 조사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진로체험 편성·운영 시 학생 의사 반영 정도별 응답 비율
(단위: %)

학생 의사 반영 정도 \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2020	2021	2020	2021
전부 반영	13.0	15.4	26.4	29.2
일부 반영	72.1	70.8	59.0	58.3
미반영	14.9	13.8	14.6	12.5
계	100.0	100.0	100.0	100.0

※ 무응답과 중복 응답은 없음.

<표 2> 2021년 진로체험 편성·운영 시 학생 의사 미반영 이유별 응답 비율
(단위: %)

미반영 이유 \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수요 기반 체험처 미확보	26.1	38.4
체험처 수용 인원 규모 초과	27.5	18.4
운영 인력 부족	18.1	16.8
이동 시간 부족	8.0	8.0
예산상의 제약	11.6	8.0
기타	8.7	10.4
계	100.0	100.0

※ 1) 2021년 조사에서 학생 의사 반영 정도를 ‘미반영’으로 응답한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무응답과 중복 응답은 없음.

<보고서>

2021년 조사 결과 진로체험 편성·운영 시 학생 의사 반영 정도를 살펴보면, ㉠ ‘일부 반영’으로 응답한 비율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70.8%, 58.3%로 가장 높았다. ㉡ ‘전부 반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중학교가 2.8%p, 고등학교가 2.4%p 증가하였다.

2021년 진로체험 편성·운영 시 학생 의사 미반영 이유를 살펴보면, ㉢ 중학교는 ‘체험처 수용 인원 규모 초과’, 고등학교는 ‘수요 기반 체험처 미확보’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타를 제외하고, ‘이동 시간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 학생 의사 미반영 이유를 ‘이동 시간 부족’으로 응답한 교원의 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동일하였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3. 다음 <표>는 2021년과 2022년 ‘갑’국의 학교급별 사교육비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1>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학교급	구분	사교육비 총액(억 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 원)	
		2021	2022	2021	2022
전체	초등학교	85,531	95,596	26.3	29.0
	중학교	49,972	52,555	31.2	33.8
	고등학교	59,348	61,817	32.1	36.5
	전체	194,851	209,968	29.1	32.1

<표 2> 분야별 사교육비 총액 현황 (단위: 억 원)

분야	연도	2021	202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42,600	154,051	56,545	46,192	51,314
일반교과	예체능 및 취미·교양	50,707	54,273	38,814	6,210	9,249
	취업	929	910	0	0	910
	진로·진학 학습상담	615	734	237	153	344
	전체	142,600	154,051	56,545	46,192	51,314

<보고서>

2022년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 원으로, 2021년 대비 1조 5천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약 9조 6천억 원, 중학교 약 5조 3천억 원, 고등학교 약 6조 2천억 원이었다.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교과’는 약 15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천억 원 이상 증가하였고, ‘예체능 및 취미·교양’은 약 5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천 5백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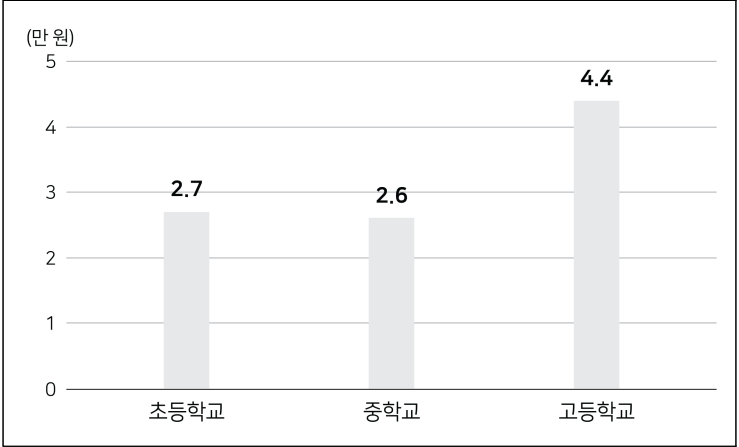
2022년 사교육비 총액 중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대비 6%p 이상 상승하였다. 이는 예체능에 대한 관심 증대, 취미·교양·재능계발 및 보육 등 사교육 목적의 다양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2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3만 원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액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2만 7천 원, 중학교 2만 6천 원, 고등학교 4만 4천 원이었다.

2022년 학생 1인당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5시간으로 전년 대비 0.3시간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7시간, 중학교 6.8시간, 고등학교 6.8시간으로 각각 전년 대비 0.4시간, 0.3시간, 0.3시간 증가하였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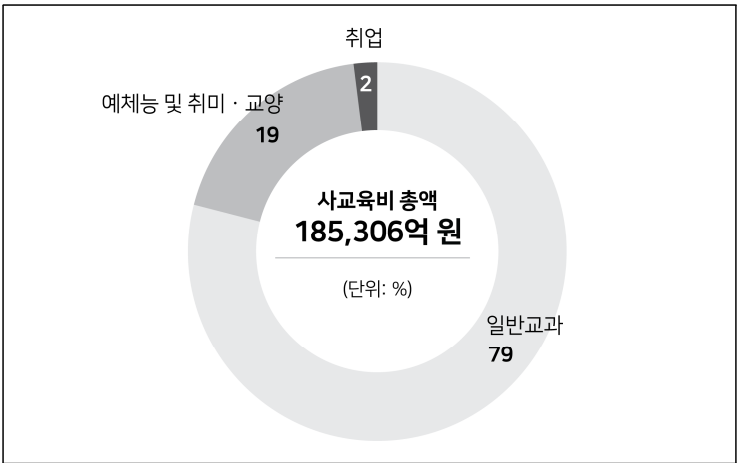
ㄱ. 전년 대비 2022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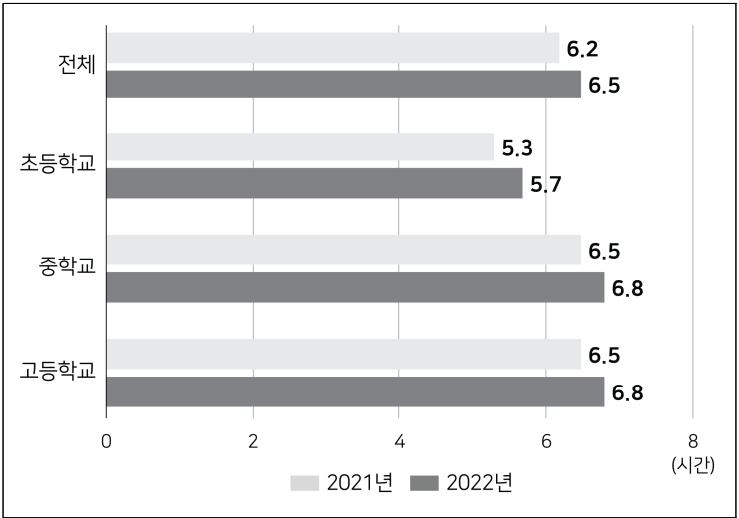
ㄴ. 2021년과 2022년 분야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 원)

분야	연도	2021	2022
일반교과	2021	21.3	23.6
	2022	21.3	23.6
	예체능 및 취미·교양	7.6	8.3
	취업	0.1	0.1
	진로·진학 학습상담	0.1	0.1

ㄷ. 2017년 분야별 사교육비 총액 구성비



ㄹ. 2021년과 2022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4. 다음 <표>는 2014년과 2019년 A~E국의 3대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에 관한 자료이고, <보고서>는 ‘갑’국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을 분석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A~E 중 ‘갑’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표> 2014년과 2019년 A~E국의 3대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사망률
(단위: 명/10만 명)

국가	연도		2014		2019	
	사망원인	성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A	암		233.9	151.9	223.5	145.5
	순환기계		219.3	165.1	185.4	136.1
	호흡기계		73.0	48.8	66.3	47.3
B	암		278.5	201.8	255.6	186.0
	순환기계		233.9	153.7	217.0	140.0
	호흡기계		102.7	75.9	113.3	83.2
C	암		265.8	125.9	254.7	125.3
	순환기계		220.7	155.6	214.5	150.0
	호흡기계		102.9	46.1	107.8	52.3
D	암		279.1	133.9	278.5	133.5
	순환기계		272.5	194.8	254.3	178.0
	호흡기계		121.2	63.5	118.5	62.1
E	암		272.3	113.9	229.0	100.9
	순환기계		187.1	133.5	148.6	105.5
	호흡기계		113.7	48.4	125.3	54.3

<보고서>

‘갑’국의 3대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사망률을 살펴보면, 남자는 2014년과 2019년 모두 암이 가장 높았고, 순환기계가 다음으로 높았다. 그에 반해, 여자는 2014년과 2019년 모두 순환기계가 가장 높았고, 암이 다음으로 높았다.

남자와 여자 모두, 2014년 대비 2019년 암과 순환기계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낮아졌으나 호흡기계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높아졌다. 2014년에는 호흡기계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이 남자와 여자 모두 암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나, 2019년에는 절반을 넘었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5. 다음 <표>는 2016~2020년 ‘갑’국의 난민심사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16~2020년 ‘갑’국 난민심사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신규 신청자	신청 철회자	심사 완료자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 불인정자	심사 인력
2016	1,574	208	523	57	206	260	20
2017	2,896	358	1,574	93	533	948	20
2018	5,268	603	2,755	105	198	2,452	30
2019	7,541	1,045	5,668	98	252	5,318	40
2020	9,942	1,117	5,890	121	317	5,452	50

※ 난민인정률(%) = $\frac{\text{난민인정자}}{\text{심사완료자}} \times 100$

- ① 심사완료자 중 인도적체류자의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
- ② 전년 대비 신규신청자 증가율이 가장 낮은 해는 2020년이다.
- ③ 난민인정률이 가장 낮은 해는 2019년이다.
- ④ 신규신청자가 가장 많은 해와 신청철회자가 가장 많은 해는 같다.
- ⑤ 심사인력 1인당 신규신청자는 매년 증가한다.

6. 다음 <표>는 2022년 A시를 방문한 내국인 및 외국인 대상 업종별 매출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내국인 및 외국인 대상 업종별 매출액
(단위: 백만 원)

업종	구분	내국인 대상	외국인 대상
쇼핑업		1,101,480	32,879
숙박업		101,230	11,472
식음료업		1,095,585	9,115
여가서비스업		92,459	1,233
여행업		958	2,000
운송업		31,114	141

※ 업종은 쇼핑업, 숙박업, 식음료업, 여가서비스업, 여행업, 운송업으로만 구성됨.

- ① 내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외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 ② 내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 중 식음료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하이다.
- ③ 외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은 내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이다.
- ④ 내국인 대상 매출액과 외국인 대상 매출액의 차이가 가장 큰 업종은 쇼핑업이다.
- ⑤ 외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 중 쇼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다.

7. 다음 <표>는 일제강점기 1933년과 1943년 한국인과 일본인의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933년과 1943년 한국인과 일본인의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현황
(단위: 명)

고등 교육기관	연도	1933			1943		
	구분	전체	한국인	일본인	전체	한국인	일본인
전문학교	전문학교	3,787	2,046	1,741	7,051	4,054	2,997
	관공립	1,716	553	1,163	3,026	802	2,224
	사립	2,071	1,493	578	4,025	3,252	773
대학예과		314	97	217	697	200	497
대학		609	202	407	779	335	444

— <보 기> —

- ㄱ. ‘대학’ 재학생은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 1943년이 1933년보다
많다.
- ㄴ. ‘전문학교’ 한국인 재학생 중 ‘사립’ 전문학교 한국인 재학생의
비중은 1943년이 1933년보다 작다.
- ㄷ. ‘대학예과’의 경우, 1933년 대비 1943년 재학생의 증가율은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높다.
- ㄹ. ‘관공립’ 전문학교 재학생 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3년이 1933년보다 작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ㄷ, ㄹ

8. 다음 <표>는 ‘갑’국 △△고속도로의 A ~ I 휴게소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고속도로 휴게소 현황
(단위: m², 면, 백만 원)

진행 방향	휴게소	준공년월	면적	주차면수	사업비
동쪽	A	1997년 6월	104,133	313	9,162
	B	2003년 12월	88,196	292	9,800
	C	1999년 9월	63,846	283	15,358
	D	2008년 10월	39,930	193	14,400
서쪽	E	2003년 12월	53,901	277	9,270
	F	1999년 12월	9,033	145	9,330
	G	2010년 8월	40,012	193	14,522
	H	1997년 12월	85,560	313	11,908
	I	2004년 1월	72,564	225	10,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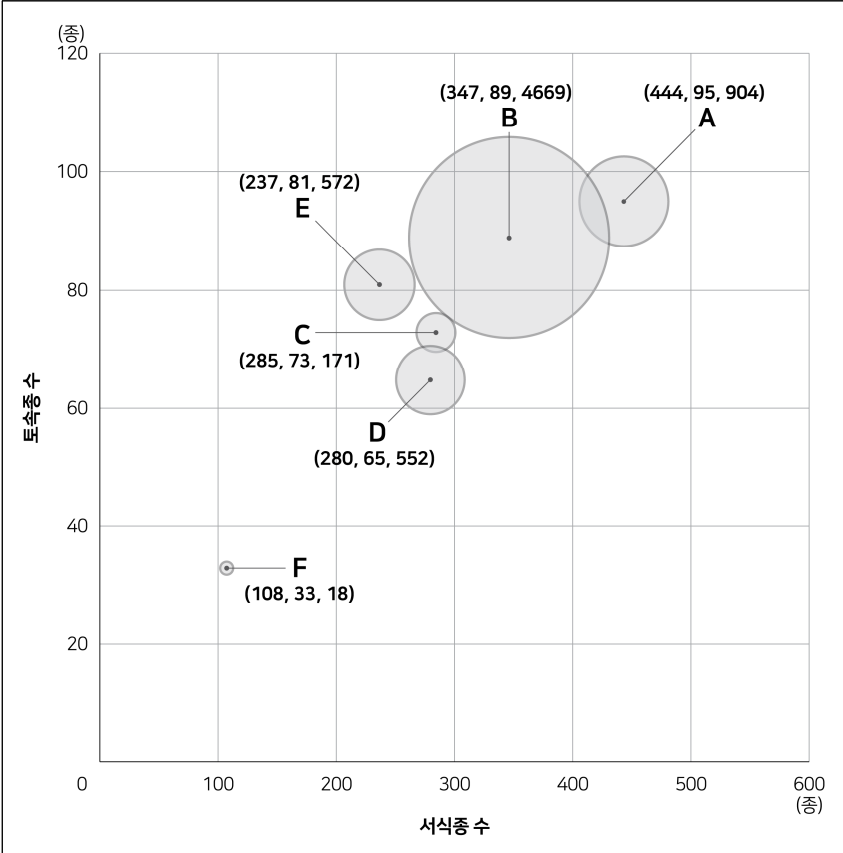
— <보 기> —

- ㄱ. 2000년 이후 준공된 휴게소 중 면적당 사업비가 가장 큰
휴게소는 E 휴게소이다.
- ㄴ. 진행 방향별 휴게소 주차면수의 합은 ‘동쪽’이 ‘서쪽’보다 적다.
- ㄷ. 면적당 주차면수가 가장 많은 휴게소는 F 휴게소이다.
- ㄹ. 주차면수당 사업비는 G 휴게소가 A 휴게소의 2배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9. 다음 <그림>은 갈라파고스 군도 A ~ F 섬의 서식종 수, 토속종 수, 면적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갈라파고스 군도 A ~ F 섬의 서식종 수, 토속종 수, 면적



※ 원의 크기는 섬의 면적(km²)에 비례하고, 괄호 안의 수치는 (서식종 수, 토속종 수, 면적)을 나타냄.

<보 기>

- ㄱ. ‘면적당 서식종 수’가 가장 많은 섬이 ‘면적당 토속종 수’도 가장 많다.
- ㄴ. ‘면적당 토속종 수’가 가장 적은 섬이 ‘서식종당 토속종 수’도 가장 적다.
- ㄷ. C 섬의 ‘면적당 서식종 수’ 순위는 F 섬의 ‘서식종당 토속종 수’ 순위와 같다.
- ㄹ. ‘면적’이 세 번째로 큰 섬이 ‘서식종 수’도 세 번째로 많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0. 다음 <표>는 ‘갑’국의 면적직불금 지급단가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농지유형별 면적구간별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단위: 만 원/ha)

면적구간 \ 농지유형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0 ha 초과 2 ha 이하분	205	178	134
2 ha 초과 6 ha 이하분	197	170	117
6 ha 초과분	189	162	100

※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별 해당 면적에 농지유형별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의 총합임. 예를 들어, ‘비진흥지역 밭’이 3 ha인 경우, 면적직불금은 385만 원 (= 134만 원/ha × 2 ha + 117만 원/ha × 1 ha)임.

<보 기>

- ㄱ. 동일한 면적에 대한 면적직불금은 ‘비진흥지역 논’이 ‘비진흥지역 밭’보다 많다.
- ㄴ. 면적이 2 ha로 같더라도 면적직불금은 ‘비진흥지역 논’과 ‘비진흥지역 밭’이 각각 1 ha인 경우가 ‘진흥지역 논·밭’만 2 ha인 경우보다 많다.
- ㄷ.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이 각각 10 ha인 총면적 30 ha의 면적직불금은 4,500만 원 이상이다.
- ㄹ. ‘비진흥지역 논’ 5 ha와 ‘비진흥지역 밭’ 5 ha의 면적직불금 차이는 250만 원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11. 다음 <표>는 A가계의 2019년과 2020년 가계지출에 관한 자료이다.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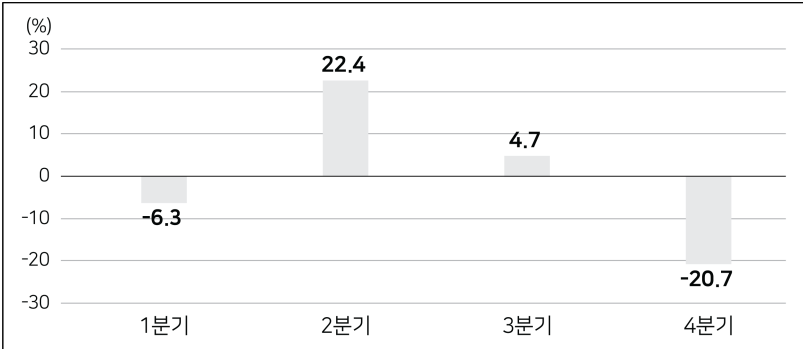
<표 1> A가계의 2019년 항목별 가계지출
(단위: 천 원)

항목 \ 분기	1	2	3	4	합
식비	1,896	2,113	1,770	1,920	7,699
교통비	227	233	327	329	1,116
주거비	961	1,186	929	919	3,995
생활용품비	643	724	536	611	2,514
여가생활비	599	643	496	325	2,063
기타	326	734	682	232	1,974
계	4,652	5,633	4,740	4,336	19,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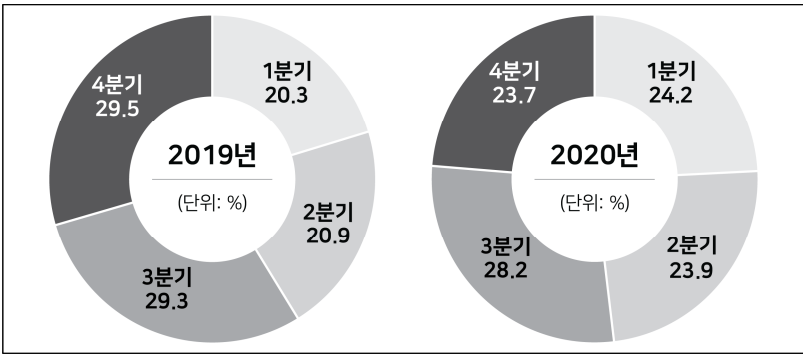
<표 2> A가계의 2020년 항목별 가계지출
(단위: 천 원)

항목 \ 분기	1	2	3	4	합
식비	1,799	2,202	2,305	1,829	8,135
교통비	387	382	451	379	1,599
주거비	977	1,161	1,039	905	4,082
생활용품비	506	601	705	567	2,379
여가생활비	442	526	285	359	1,612
기타	203	412	267	561	1,443
계	4,314	5,284	5,052	4,600	19,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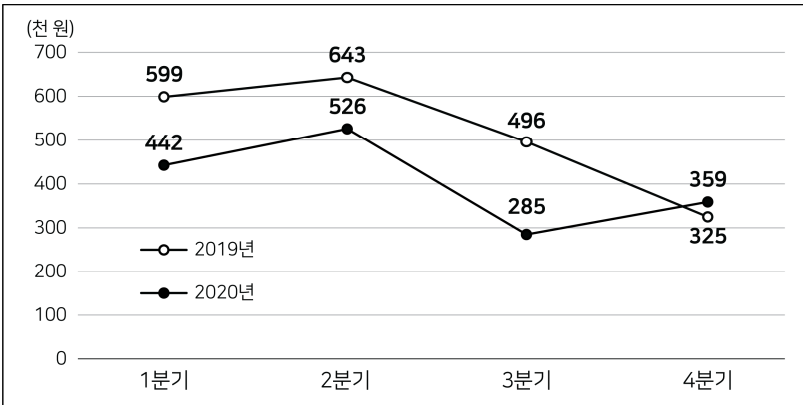
① 2020년 분기별 ‘식비’의 직전 분기 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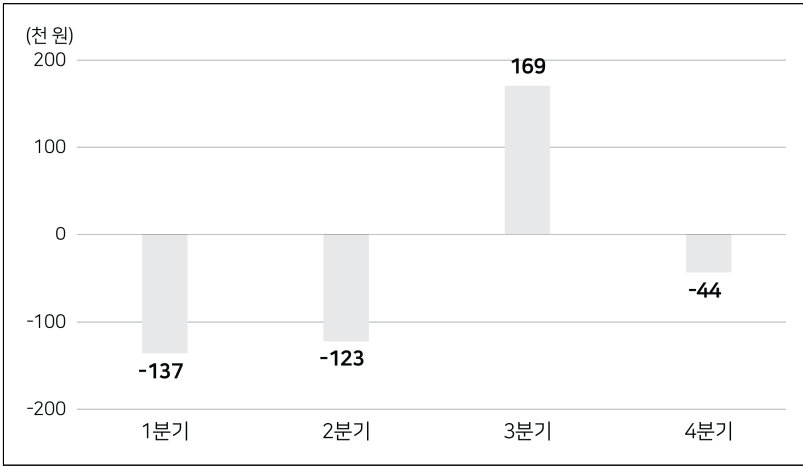
② 2019년과 2020년 연간 ‘교통비’의 분기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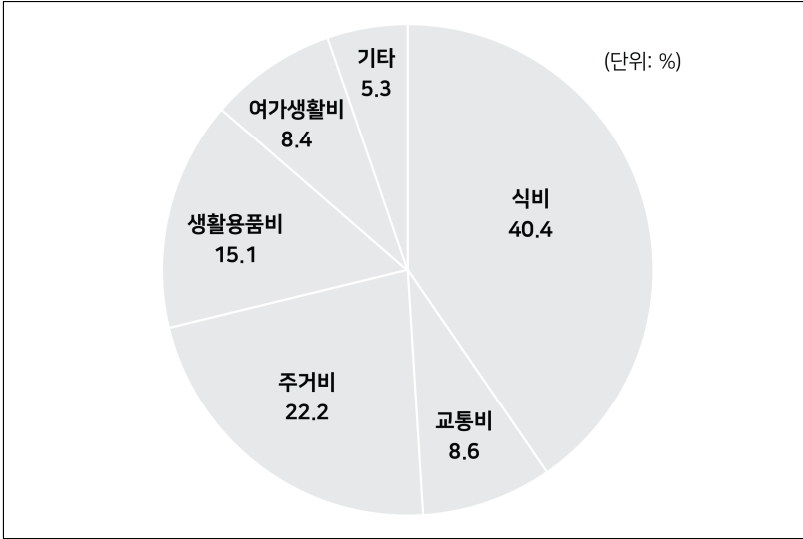
③ 2019년과 2020년 분기별 ‘여가생활비’



④ 2020년 ‘생활용품비’의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액



⑤ 2019년 4분기 가계지출 항목별 구성비



12. 다음 <표>는 2022년 ‘갑’시 6개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22년 ‘갑’시 6개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도서관명	설립 년도	규모			이용 현황		직원 (명)
		부지 (㎡)	건물 (㎡)	열람석 (석)	이용건수 (건)	보유서적 (권)	
꿈발	2006	18,082	10,553	1,528	50,863	17,304	11
들풀	1989	5,048	3,461	812	71,675	21,937	23
새벗	1973	2,306	1,306	263	16,475	4,182	11
셋별	2019	8,211	4,600	901	61,144	36,450	22
숲길	1995	10,260	9,181	1,798	115,908	39,499	49
한빛	1991	3,840	2,140	520	14,451	4,356	10

- ① 1990년대에 설립된 도서관 이용건수의 합은 2000년 이후 설립된 도서관 이용건수의 합보다 적다.
- ② 이용건수 대비 보유서적 수의 비율이 가장 낮은 도서관은 ‘새벗’ 도서관이다.
- ③ 건물 규모가 부지 규모의 60 % 이상인 도서관은 3개이다.
- ④ 건물 1㎡당 열람석이 가장 많은 도서관은 직원 수가 두 번째로 많다.
- ⑤ 2000년 이전에 설립된 도서관은 설립년도가 이룰수록 이용건수가 적다.

13. 다음 <보고서>는 2015 ~ 2020년 한국의 항공기 및 부품 산업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보고서>—

한국의 항공기 및 부품 산업 ‘무역수지’는 2017년을 제외하고 2015년 이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수출액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7년 항공기 및 부품 산업 수출액은 전기차 산업 수출액의 2배 이상이었으나, 2020년에는 전기차 산업 수출액의 1/3 이하인 14.3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0년 한국은 항공기 및 부품 산업의 수출규모와 기술수준 면에서 세계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한국의 항공기 및 부품 산업 수출규모는 미국의 1/50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역수지’가 적자인 일본 수출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2020년 한국의 우주·항공·해양 분야의 기술수준은 미국의 68.4% 수준으로 중국(81.6%)과 일본(83.5%)에 비해서도 뒤처져 있으며, 미국과의 기술격차에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 4년 이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항공기 및 부품 산업의 제품 차별화 수준을 나타내는 ‘산업내 무역지수’를 살펴보면, 2015년 0.662에서 2020년 0.785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영국 등 완제기 부문에서 다양한 제품으로 특화된 항공선진국과 비교할 때, 2020년 한국의 항공기 및 부품 분야의 제품 차별화 수준은 미국, 독일, 영국보다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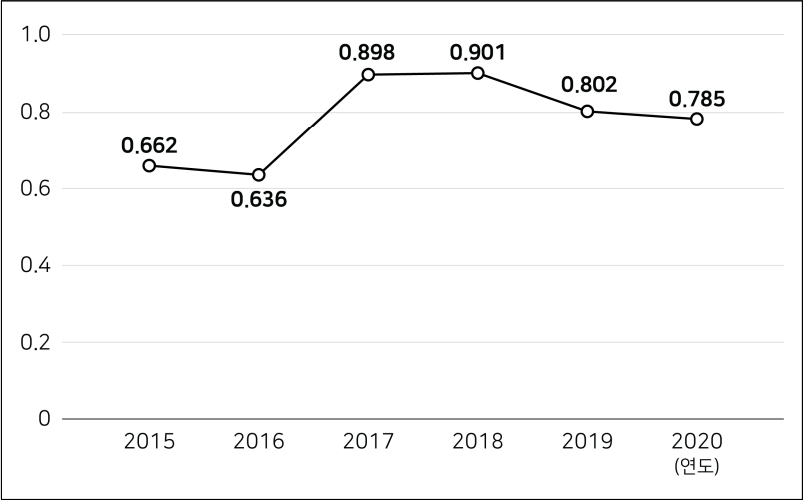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국의 경량항공기 산업은 여전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 수입액이 수출액의 4배 이상이었다. 그렇지만 수출액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③ 2020년 우주·항공·해양 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비교
(단위: %, 년)

구분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기술수준	100.0	68.4	81.6	83.5	93.3
기술격차	0.0	8.6	5.1	4.8	1.9

※ 미국의 기술수준(100%)과 기술격차(0년)를 기준으로 산정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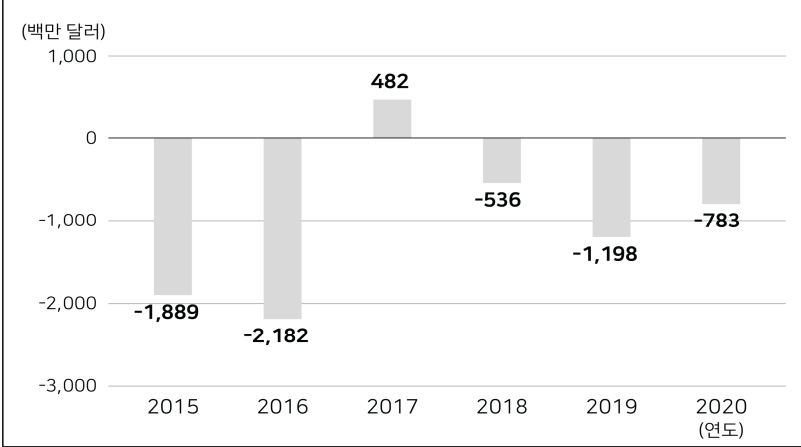
④ 한국의 항공기 및 부품 산업 ‘산업내 무역지수’



⑤ 2015 ~ 2020년 한국의 경량항공기 산업의 수출액과 수입액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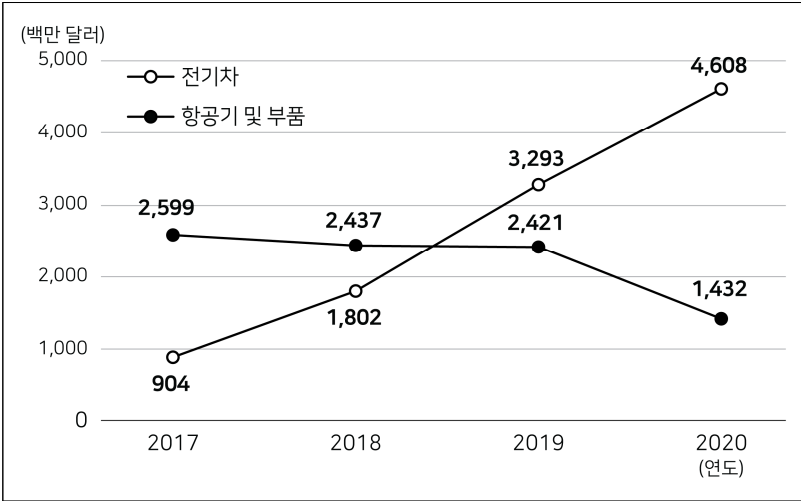
연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5	1,125	28,329	-27,204
2016	1,722	23,018	-21,296
2017	2,899	18,424	-15,525
2018	1,352	14,442	-13,090
2019	2,114	14,905	-12,791
2020	4,708	20,279	-15,571

① 2015 ~ 2020년 한국의 항공기 및 부품 산업 ‘무역수지’ 현황



※ 무역수지(= 수출액 - 수입액) 값이 음수이면 적자이고 양수이면 흑자임.

② 2017 ~ 2020년 한국의 전기차 산업과 항공기 및 부품 산업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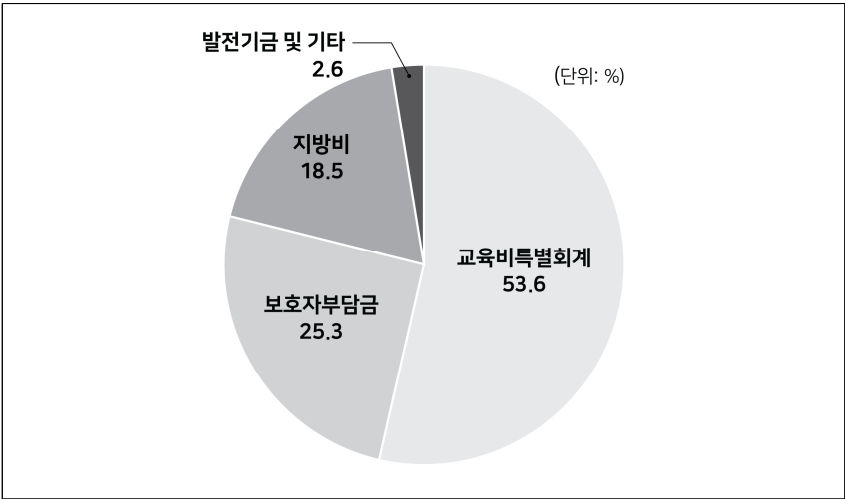


14. 다음 <표>와 <그림>은 ‘갑’국의 전국 학교급식 운영 및 예산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제시된 <표>와 <그림>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전국 학교급별 학교급식 현황
(단위: 천 명, 개교)

학교급	학교급식 참여 학생 수	학교급식 운영 학교 수		
			직영운영	위탁운영
초등학교	2,688	6,044	6,042	2
중학교	1,384	3,213	3,179	34
고등학교	1,646	2,373	2,154	219
특수학교	24	170	167	3
전체	5,742	11,800	11,542	258

<그림> 전국 학교급식 예산 재원별 구성비



<보고서>

‘갑’국에서 급식에 참여하는 학생은 초등학생 268만 8천 명, 중학생 138만 4천 명, 고등학생 164만 6천 명, 특수학교 학생 2만 4천 명으로, 학교급별 총학생 중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중은 각각 초등학생 99.9%, 중학생 100%, 고등학생 99.5%, 특수학교 학생 98.5%였다.

학교급식 운영형태는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학교급식 운영 학교 11,800개교 중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11,542개교였다.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학교 중 직영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비율을 학교급별로 알아보면, 초등학교는 99.9%(6,042개교), 중학교는 98.9%(3,179개교), 고등학교는 90.8%(2,154개교), 특수학교는 98.2%(167개교)로 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직영운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급식을 위탁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258개교였다.

학교급식 조리 형태는 단독조리 또는 공동조리로 구분되는데, 단독조리 학교급식 운영 학교가 78.1%로 공동조리 학교급식 운영 학교의 3배 이상이었다.

전체 학교급식 예산액은 5조 9,088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교육비특별회계 3조 1,655억 원, 보호자부담금 1조 4,972억 원, 지방비 1조 925억 원, 발전기금 및 기타 1,536억 원이었다.

- <보 기>————
- ㄱ. 전국 학교급식 재원별 예산액
 - ㄴ. 전국 학교급별 학교급식 직영운영 학교 수
 - ㄷ. 전국 학교급별 총학생 수
 - ㄹ. 전국 학교급별 단독조리 학교급식 운영 학교 수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5. 다음 <표>는 2020년 ‘갑’ 지역 수산물 생산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을 근거로 A ~ E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2020년 ‘갑’ 지역 수산물 생산 현황
(단위: 톤, %, 억 원)

구분 수산물	갑				전국	
	생산량	전국 대비 비중	생산액	전국 대비 비중	생산량	생산액
A	660,366	97.8	803	92.3	675,074	870
B	482,216	95.2	1,181	82.1	506,620	1,439
C	394,111	73.5	3,950	77.7	536,341	5,084
D	46,631	14.3	428	14.6	325,889	2,940
E	27,730	99.0	146	98.6	28,017	148

※ 1) ‘갑’ 지역에서 수산물은 굴, 김, 다시마, 미역, 톳만 생산됨.
2) 시장지배력지수 = $\frac{\text{지역 생산량} \times \text{지역 생산액}}{\text{전국 생산량} \times \text{전국 생산액}}$

- <조 건>————
- 생산량의 전국 대비 비중이 생산액의 전국 대비 비중보다 큰 수산물은 다시마, 미역, 톳이다.
 - ‘갑’ 지역에서 생산량 순위와 생산액 순위가 같은 수산물은 굴, 미역, 톳이다.
 - ‘시장지배력지수’가 가장 높은 수산물은 톳이다.

- | | A | B | C | D | E |
|---|-----|-----|---|---|----|
| ① | 다시마 | 미역 | 굴 | 김 | 톳 |
| ② | 다시마 | 미역 | 김 | 굴 | 톳 |
| ③ | 다시마 | 톳 | 굴 | 김 | 미역 |
| ④ | 다시마 | 톳 | 김 | 굴 | 미역 |
| ⑤ | 미역 | 다시마 | 굴 | 김 | 톳 |

16. 다음 <표>는 2022년 ‘갑’ 부처 기금 A~E의 예산과 기금건전성 평가 결과 및 2023년 기금예산 결정방식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2022년 기금별 예산과 기금건전성 평가 결과
(단위: 백만 원, 점)

구분 기금	2022년 예산	평가항목별 점수			기금건전성 총점
		사업 적정성 점수	재원구조 적정성 점수	기금존치 타당성 점수	
A	200,220	30	18	()	76
B	34,100	24	30	13	()
C	188,500	()	14	15	82
D	9,251	25	17	13	()
E	90,565	18	15	6	45

※ 기금건전성 총점 =
사업 적정성 점수 + 재원구조 적정성 점수 + 기금존치 타당성 점수 × 2

<표 2> 2023년 기금예산 결정방식

2022년 기금건전성 총점	2023년 예산
60점 미만	2022년 예산의 80 %
60점 이상 80점 미만	2022년 예산의 100 %
80점 이상	2022년 예산의 110 %

— <보 기> —

- ㄱ. 2022년 기금건전성 총점이 가장 높은 기금은 C이다.
- ㄴ. 기금존치 타당성 점수는 A가 B보다 낮다.
- ㄷ. 2023년 A ~ E 예산의 합은 전년 대비 2 % 이상 증가한다.
- ㄹ. 2022년 사업 적정성 점수가 가장 높은 기금은 2023년 예산이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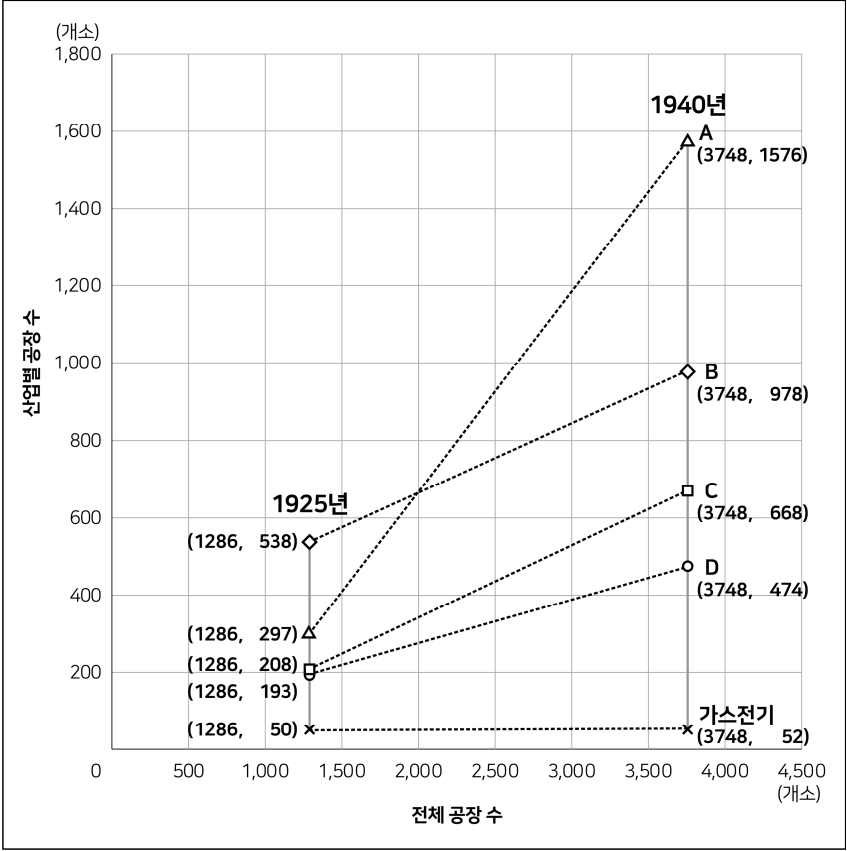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ㄷ, ㄹ

17. 다음 <표>와 <그림>은 ‘갑’국의 1925 ~ 1940년 산업별 공장 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근거하여 <그림>의 A ~ D에 해당하는 산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1934년과 1940년의 산업별 공장 수
(단위: 개소)

구분 산업	1934년 공장 수	1925년 대비 증가	1940년 공장 수	1934년 대비 증가
가스전기	52	2	()	0
금속기계	524	-14	()	()
목제품	206	13	()	()
방직	()	128	()	332
화학	()	605	()	()

<그림> 1925년과 1940년 산업별 공장 수 변화 추이



※ A ~ D는 각각 금속기계, 목제품, 방직, 화학 산업 중 하나임.

- | | | | |
|----------|----------|----------|----------|
| <u>A</u> | <u>B</u> | <u>C</u> | <u>D</u> |
| ① 금속기계 | 방직 | 화학 | 목제품 |
| ② 금속기계 | 화학 | 목제품 | 방직 |
| ③ 목제품 | 금속기계 | 방직 | 화학 |
| ④ 화학 | 금속기계 | 방직 | 목제품 |
| ⑤ 화학 | 방직 | 금속기계 | 목제품 |

[18 ~ 19] 다음 <표>는 ‘갑’국의 2020년 6 ~ 11월 마스크 생산량 및 가격, 6월과 11월의 마스크 제조업체 수 및 품목별 허가제품 수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 1> 마스크 생산량 (단위: 만 개)

월\품목	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
6	10,653	1,369	351
7	9,369	8,181	519
8	15,169	10,229	1,970
9	19,490	5,274	1,590
10	13,279	3,079	1,023
11	10,566	2,530	950

※ ‘갑’국의 마스크 품목은 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으로만 분류됨.

<표 2> 마스크 가격 (단위: 원/개)

월\구분	보건용		비말차단용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6	1,685	2,170	1,085	1,037
7	1,758	1,540	725	856
8	1,645	1,306	712	675
9	1,561	1,027	714	608
10	1,476	871	696	572
11	1,454	798	686	546

<표 3> 마스크 제조업체 수 및 품목별 허가제품 수 (단위: 개)

구분\월		6	11
마스크 제조업체		238	839
허가제품	보건용	1,525	2,098
	비말차단용	120	851
	수술용	72	300

18. 위 <표>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전월 대비 보건용 마스크의 온라인 가격 감소율이 가장 큰 달과 전월 대비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온라인 가격 감소율이 가장 큰 달은 같다.

ㄴ. 제조업체당 마스크 생산량은 11월이 6월의 40 %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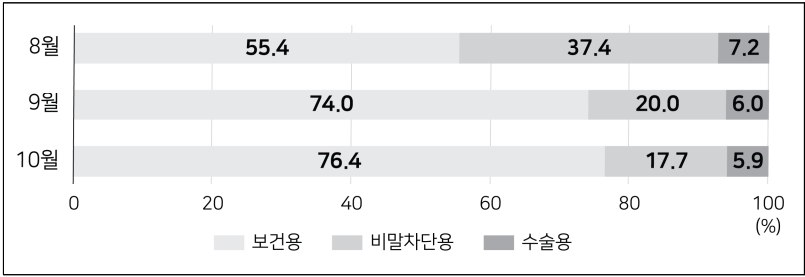
ㄷ. 월별 마스크 총생산량은 8월 이후 매월 감소하였다.

ㄹ. 6월에는 생산량이 많은 품목일수록 허가제품 수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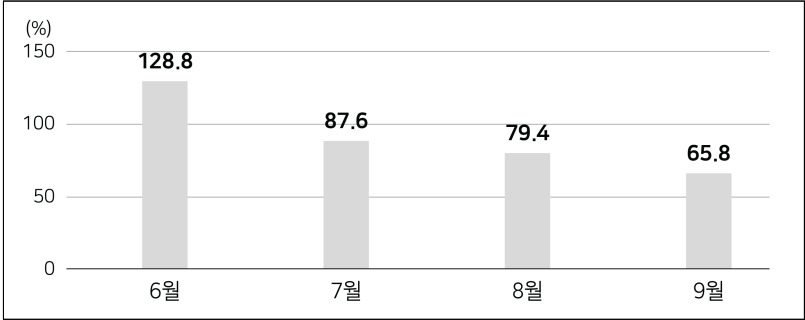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19. 위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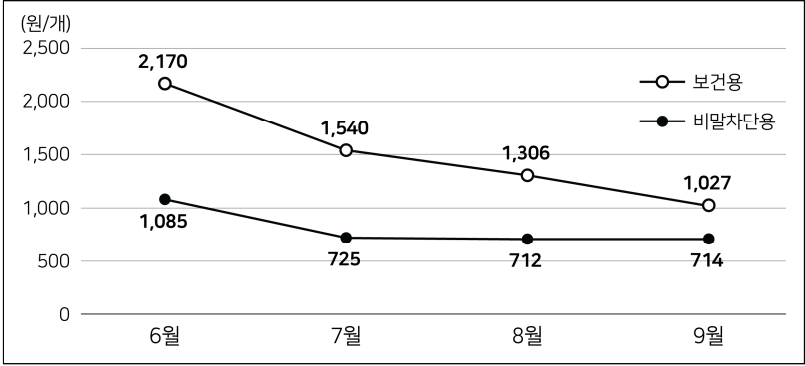
① 8 ~ 10월 품목별 마스크 생산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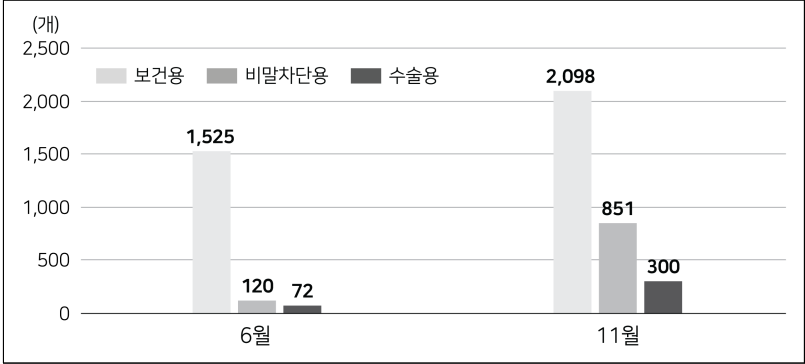
② 6 ~ 9월 보건용 마스크의 오프라인 가격 대비 온라인 가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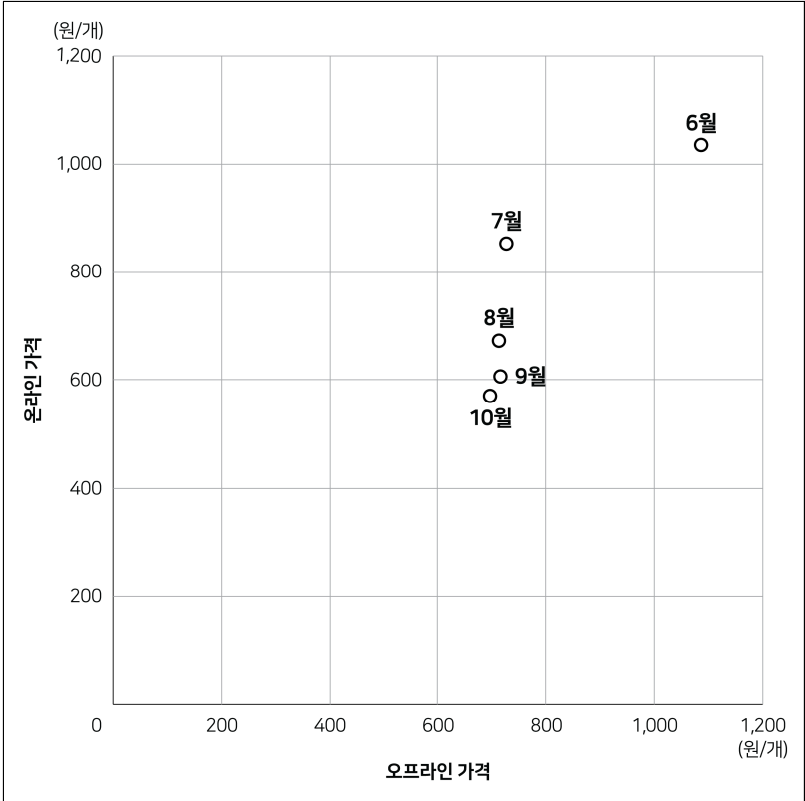
③ 6 ~ 9월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온라인 가격



④ 품목별 마스크 허가제품 현황



⑤ 6 ~ 10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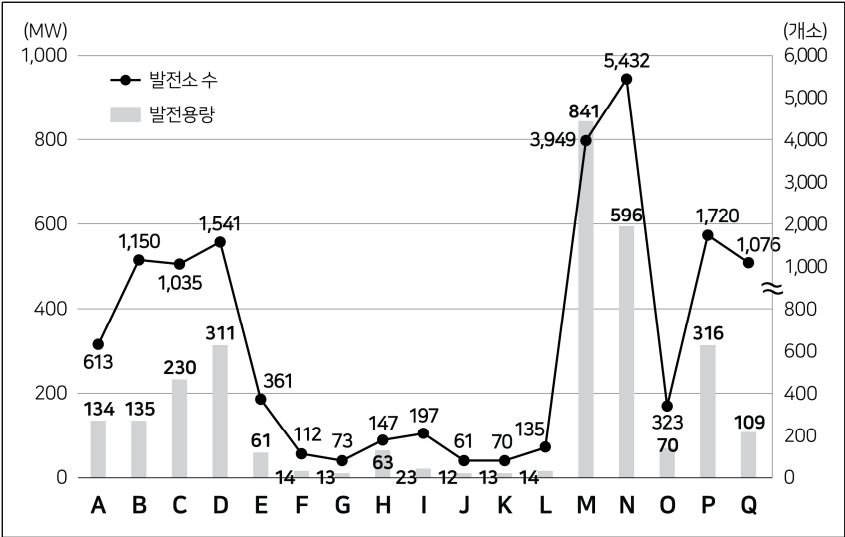


20. 다음 <표>와 <그림>은 ‘갑’국의 2019 ~ 2021년 신재생 에너지원별 발전소 현황 및 2022년 A ~ Q 지역별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에너지원별 발전소 현황
(단위: 개소, M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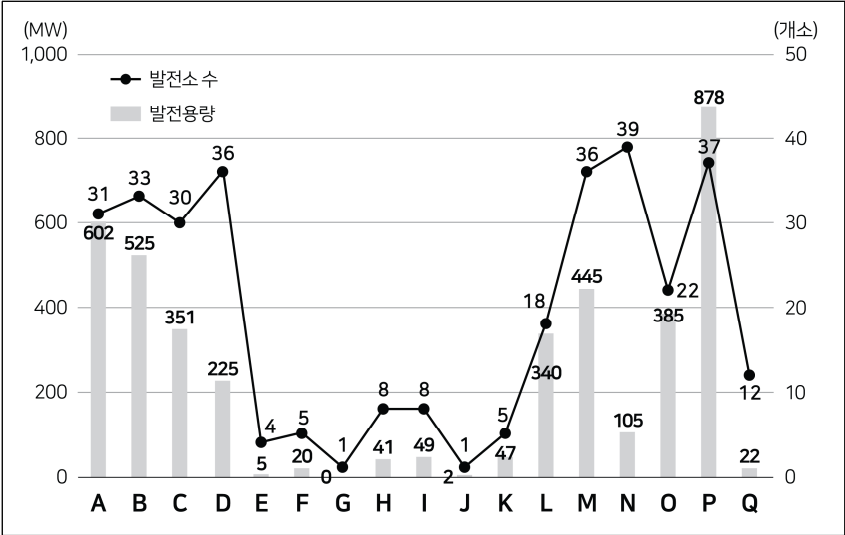
연도 구분 에너지원		2019		2020		2021	
		발전소 수	발전 용량	발전소 수	발전 용량	발전소 수	발전 용량
태양광		1,901	386	5,501	869	6,945	986
비 태 양 광	풍력	6	80	7	66	14	227
	수력	7	3	17	18	10	3
	연료전지	14	104	5	35	4	14
	바이오	14	299	26	705	12	163
	기타	3	26	13	53	10	31
전체		1,945	898	5,569	1,746	6,995	1,424

<그림 1> 2022년 지역별 태양광 발전소 현황



※ ‘갑’국에는 A ~ Q 지역만 있음.

<그림 2> 2022년 지역별 비태양광 발전소 현황



- ① 2022년 발전용량이 가장 큰 지역은 M이다.
- ② 태양광 발전소 수는 2022년이 2021년의 2배 이상이다.
- ③ 전체 발전용량 중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 ~ 2021년 동안 매년 증가하였다.
- ④ 2021년 발전소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풍력이 태양광의 3배 이상이다.
- ⑤ 기타를 제외하고, 2021년 발전소 1개소당 발전용량이 큰 에너지원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태양광, 수력이다.

21. 다음 <표>와 <정보>는 2016년과 2021년 ‘갑’국 일평균 농식품 폐기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근거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일평균 농식품 폐기량
(단위: 톤/일)

연도	농식품		A	B	C	D	기타	합계
	분야							
2016	제조		12.7	5.6	24.3	4.6	7.5	54.7
	유통		29.5	22.2	18.4	27.2	14.3	111.6
	소비	가정	52.3	40.7	29.9	19.8	24.0	166.7
		음식점업	280.6	112.9	184.4	156.2	148.2	882.3
		숙박업	113.0	55.4	52.2	47.5	46.6	314.7
		교육기관	66.5	34.2	41.9	30.7	23.4	196.7
2021	제조		16.9	5.1	10.9	5.8	6.0	44.7
	유통		64.8	35.2	55.5	30.4	40.1	226.0
	소비	가정	55.1	33.8	35.4	29.1	27.3	180.7
		음식점업	324.4	98.0	251.2	189.9	122.2	985.7
		숙박업	97.3	46.4	82.5	48.4	42.3	316.9
		교육기관	69.8	25.9	55.9	35.3	23.2	210.1

※ 소비 분야는 가정, 음식점업, 숙박업, 교육기관으로만 구성됨.

<정 보>

- A ~ D는 과일류, 곡류, 어육류, 채소류 중 하나이다.
- 기타를 제외하고, 2016년 대비 2021년 제조 분야의 농식품 폐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농식품은 채소류이다.
- 기타를 제외하고, 2016년 대비 2021년 제조, 유통 분야와 소비의 각 분야에서 일평균 폐기량이 모두 증가한 농식품은 어육류이다.
- 기타를 제외하고, 2021년 소비 분야의 연간 폐기량이 가장 적은 농식품은 과일류이다.

<보 기>

- ㄱ. 2021년 소비 분야 일평균 어육류 폐기량은 300톤보다 많다.
- ㄴ. 2016년 유통 분야에서 연간 폐기량은 채소류가 과일류보다 많다.
- ㄷ. 기타를 제외하고, 2016년 대비 2021년 가정의 일평균 농식품 폐기량은 모두 증가하였다.
- ㄹ. 숙박업의 일평균 채소류 폐기량은 2021년이 2016년보다 적다.

- ① ㄱ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2. 다음 <표>는 2020년과 2021년 ‘갑’국의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건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20년과 2021년 ‘갑’국의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건수
(단위: 건)

발화요인 \ 연도	2020	2021
전기적 요인	9,329	9,472
기계적 요인	4,053	4,038
제품 결함	101	168
가스 누출	141	146
화학적 요인	630	683
교통사고	458	398
부주의	19,186	16,875
자연적 요인	238	241
방화	1,257	1,158
미상	3,266	3,088
전체	38,659	36,267

※ 화재발생 1건에 대해 발화요인은 1가지로만 분류함.

- ① 2021년 화재발생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발화요인은 ‘제품 결함’이다.
- ② 전체 화재발생 건수 중 발화요인이 ‘부주의’인 화재발생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이 2020년보다 크다.
- ③ 화재발생 건수가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상위 3개 발화요인은 2020년과 2021년이 같다.
- ④ 2021년 화재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발화요인은 5개이다.
- ⑤ 2021년 전체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6 % 이상 감소하였다.

23. 다음 <표>는 2020년과 2021년 ‘갑’국 주요 축산물의 축종별 수익성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20년과 2021년 ‘갑’국 주요 축산물의 축종별 수익성 현황
(단위: 천 원/마리)

축종 \ 연도	2020			2021		
	총수입	소득	순수익	총수입	소득	순수익
한우번식우	3,184	1,367	518	3,351	1,410	563
한우비육우	9,387	1,190	58	10,215	1,425	292
육우	4,789	377	-574	5,435	682	-231
젖소	10,657	3,811	2,661	10,721	3,651	2,434
비육돈	362	63	47	408	83	68
산란계	31	4	3	52	21	20

- ※ 1) 소득 = 총수입 - 일반비
- 2) 순수익 = 총수입 - 사육비
- 3) 일반비 = 사육비 - 내급비

- ①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은 축종은 ‘육우’이다.
- ② 2021년 ‘한우번식우’의 사육비는 2020년보다 적다.
- ③ 2020년의 경우, 사육비가 총수입보다 많은 축종은 2개이다.
- ④ 2021년 일반비는 ‘젖소’가 ‘육우’의 2배 이상이다.
- ⑤ 2021년 내급비가 가장 많은 축종은 ‘젖소’이다.

24. 다음 <표>는 A 지역의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 지역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단위: 톤/일)

유형 \ 연도	구분	2019		2020	
		발생량	재활용량	발생량	재활용량
생활폐기물		7,041.1	()	9,673.4	()
음식물폐기물		2,827.4	2,827.4	2,539.7	2,539.7
사업장폐기물		2,303.0	932.6	2,301.3	1,077.1
건설폐기물		35,492.5	34,693.0	39,904.0	38,938.3
지정폐기물		352.9	74.6	361.5	80.1
합계		48,016.9	42,256.9	54,779.9	46,503.9

※ 재활용률(%) = $\frac{\text{일평균 폐기물 재활용량}}{\text{일평균 폐기물 발생량}} \times 100$

- <보 기> —
- ㄱ. 2020년 일평균 폐기물 발생량이 2019년보다 많은 유형은 2개이다.
 - ㄴ. 2020년 일평균 생활폐기물 재활용량은 2019년보다 많다.
 - ㄷ. 2020년 연간 음식물폐기물 재활용량은 100만 톤 이상이다.
 - ㄹ. 2019년에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은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보다 50 %p 이상 높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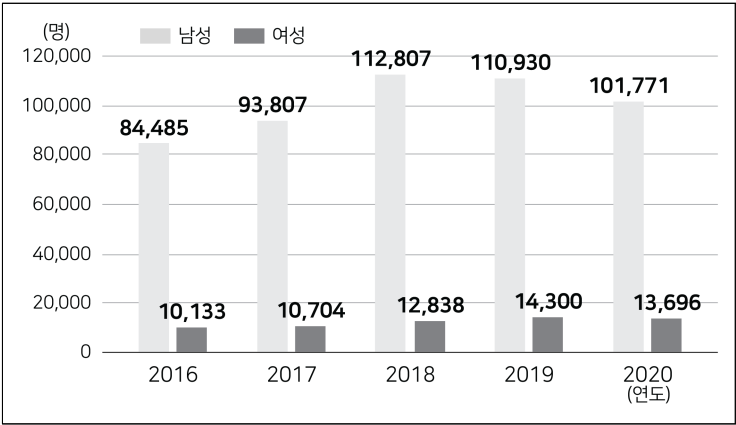
25. 다음 <표>는 ‘갑’국의 2016 ~ 2020년 보호관찰 접수 인원에 관한 자료이다.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보기>의 자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연도별 보호관찰 접수 인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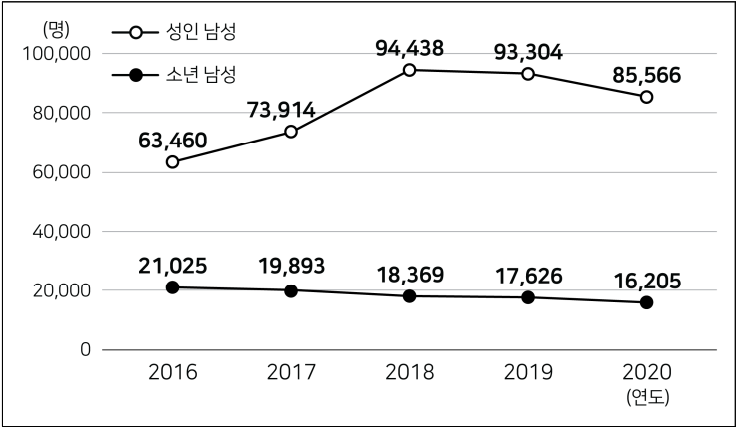
연도\구분	소년			성인			전체
	소년	남성	여성	성인	남성	여성	
2016	25,162	21,025	4,137	69,456	63,460	5,996	94,618
2017	23,330	19,893	3,437	81,181	73,914	7,267	104,511
2018	22,039	18,369	3,670	103,606	94,438	9,168	125,645
2019	21,676	17,626	4,050	103,554	93,304	10,250	125,230
2020	20,319	16,205	4,114	95,148	85,566	9,582	115,467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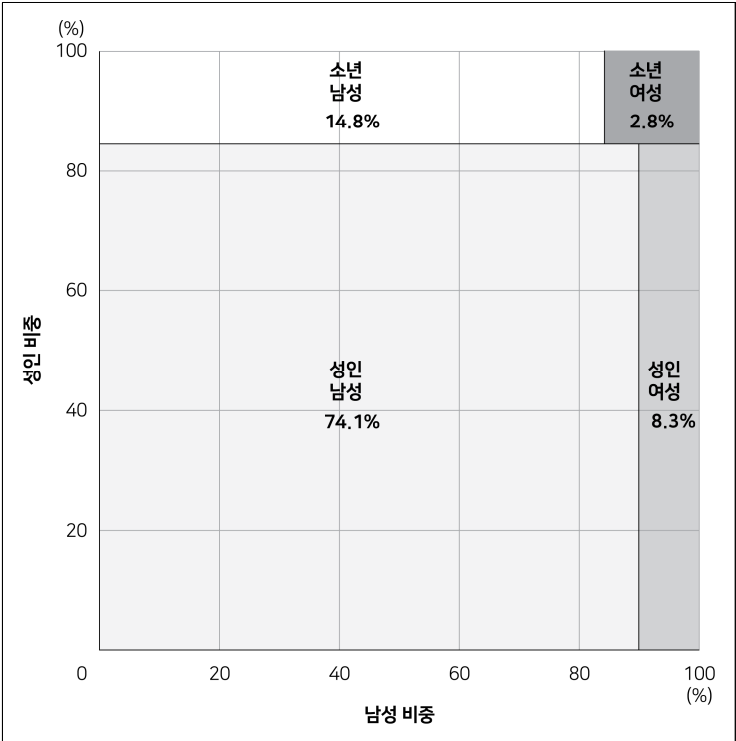
ㄱ. 연도별 전체 보호관찰 접수 성별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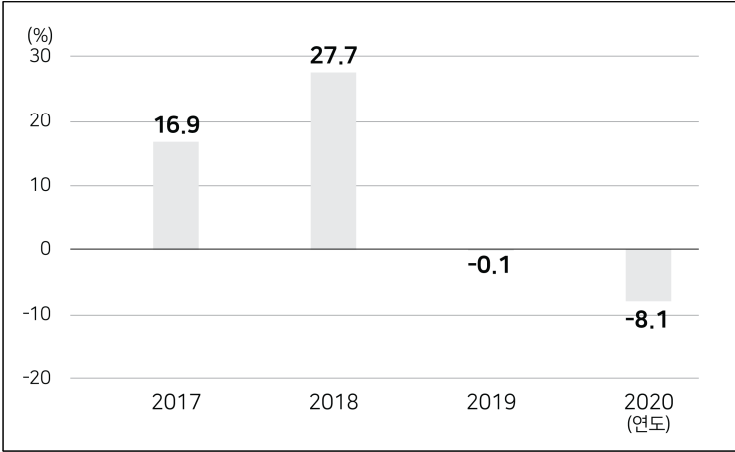
ㄴ. 연도별 소년 남성 및 성인 남성 보호관찰 접수 인원



ㄷ. 2020년 보호관찰 접수 인원 구성비



ㄹ. 연도별 소년 보호관찰 접수 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6. 다음 <표>는 2021년 ‘갑’국 대학교의 자료구입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갑’국 대학교의 자료구입비 (단위: 개, 천 명, 백만 원)

구분	대학교 수	재학생 수	자료 구입비	전자자료 구입비	도서 구입비
4년제	256	1,910	227,290	()	62,823
2년제	135	435	()	2,679	8,196

※ ‘갑’국 대학교는 4년제와 2년제로만 구성됨.

<표 2> ‘갑’국 대학교의 전자자료구입비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전자자료 구입비	전자저널 구입비	웹자료 구입비	기타전자자료 구입비
4년제	164,467	()	39,963	8,461
2년제	2,679	904	883	892

- ① 4년제는 전자자료구입비가 도서구입비의 2배 이상이다.
- ② 대학교 1개당 자료구입비는 6억 원 이하이다.
- ③ 재학생 1명당 자료구입비는 4년제가 2년제의 4배 이상이다.
- ④ 전자저널구입비가 자료구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년제가 2년제보다 크다.
- ⑤ 웹자료구입비와 기타전자자료구입비의 합은 2년제가 4년제의 5% 이하이다.

27. 다음 <표>는 2022년 ‘갑’시의 시내버스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버스종류별 노선 수 및 인가차량 현황
(단위: 개, 대)

구분 버스종류	노선 수	인가차량	운행차량	예비차량
간선	126	3,598	3,429	169
지선	223	3,454	3,258	196
광역	10	229	211	18
순환	1	12	10	2
심야	14	100	96	4
계	374	7,393	7,004	389

<표 2> 인가차량 대수 구간별 회사 수
(단위: 개)

대수 구간	1 ~ 40대	41 ~ 80대	81 ~ 120대	121 ~ 160대	161 ~ 200대	201대 이상	합
회사	5	8	28	10	10	4	65

——<보 기>——

ㄱ. 인가차량 중 운행차량의 비중은 ‘심야’가 가장 크다.
ㄴ. 노선 수 대비 예비차량 대수의 비율은 ‘광역’이 ‘지선’의 2배 이하이다.
ㄷ. 인가차량 대수 상위 4개 회사의 인가차량 대수 평균은 500 이하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28. 다음 <표>는 A사 임직원 평균 연봉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사 임직원 평균 연봉 현황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연봉
전체 임직원	6,000
과장 이하 직급	4,875
주임 이하 직급	3,750
사원 이하 직급	3,000
수습	2,000

※ 1) ‘평균 연봉’은 해당 임직원 연봉의 합을 해당 임직원 수로 나눈 값임.
2) 직급을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사장, 과장, 주임, 사원, 수습이고, A사의 전체 임직원은 사장 1명, 과장 2명, 주임 3명, 사원 5명, 수습 10명으로 구성됨.

——<보 기>——

ㄱ. 사장의 연봉은 3억 원 이상이다.
ㄴ. 주임 3명의 평균 연봉은 7천만 원 이상이다.
ㄷ. 사원 5명의 연봉의 합은 과장 2명의 연봉의 합보다 작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9. 다음 <표>는 2011 ~ 2021년 ‘갑’ 복지재단의 수입, 지출 및 기금 적립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갑’ 복지재단의 수입, 지출 및 기금 적립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수입	지출	사업 부문	운영 부문	기금 적립
2011		13,930	3,818	()	799	10,112
2012		14,359	3,575	3,194	381	10,784
2013		14,766	4,881	4,337	544	9,885
2014		15,475	8,989	7,931	1,058	()
2015		12,266	()	5,068	1,431	5,767
2016		10,988	()	8,415	1,041	()
2017		13,101	8,213	7,038	1,175	4,888
2018		17,498	8,390	6,977	1,413	9,108
2019		17,395	8,193	6,522	1,671	9,202
2020		14,677	7,894	6,435	1,459	6,783
2021		()	8,291	6,813	()	13,553

※ 1) 기금 적립 = 수입 - 지출
2) 지출은 사업 부문과 운영 부문으로만 구성됨.

——<보 기>——

ㄱ. 수입이 2014년보다 많은 연도는 2개이다.
ㄴ. 수입이 가장 적은 연도와 기금 적립이 가장 적은 연도는 같다.
ㄷ. 2011년 대비 2021년 지출의 부문별 증가율은 사업 부문이 운영 부문보다 높다.
ㄹ. 지출 중 운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이 가장 크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0. 다음 <보고서>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분석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 <보고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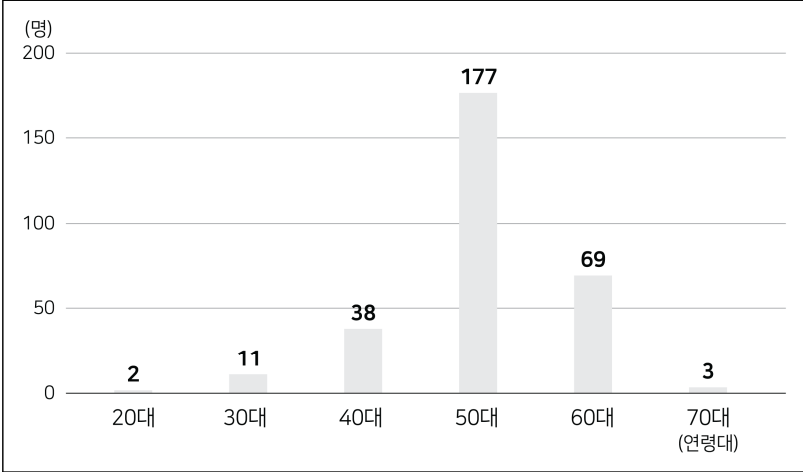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총 300명이다. 평균 연령은 54.9세이며, 이 중에서도 50대가 17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50대 다음으로는 60대가 많았는데, 이 두 연령대만 합쳐도 246명으로 전체의 82 %였다. 한편, 40대는 38명, 30대는 11명, 70대는 3명이었다. 최고령 당선자는 72세이고, 최연소 당선자는 27세이다.

여성 당선자는 57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19 %이며, 이는 20대 국회보다 2%p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구 여성 당선자는 지역구 전체 당선자의 약 11.5 %에 그쳤다. 반면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는 28명으로 비례대표 전체 당선자의 약 60 %였다. 지역구보다 비례대표에서 여성 당선자 비율이 높은 현상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고 여성 후보를 홀수 순번으로 배치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결과로 분석된다.

당선자의 최종 학력은 대부분 대졸 이상이었다. 지역구 당선자는 전원이 대졸 이상이었으며 비례대표 당선자는 고졸, 대학교 재학, 대학교 중퇴, 대학교 수료가 각각 1명씩이었다. 당선자의 최종 학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자 모두 대학원 졸업일 정도로 고학력 당선자가 많았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대학원을 졸업한 당선자가 30명으로 비례대표 전체 당선자의 63 % 이상이었다. 대졸 이상의 당선자를 출신대학별로 살펴보면 A 대학 63명, B 대학 27명, C 대학 22명 순으로 이 세 대학 출신이 대졸 이상 당선자의 30 % 이상을 차지하였다.

당선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정치인이 217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70 %를 넘어선다. 다음으로 변호사가 20명, 교수가 16명 순이었고, 변호사와 교수 출신 당선자를 합하면 전체 당선자의 10 % 이상을 차지하였다.

① 21대 당선자의 연령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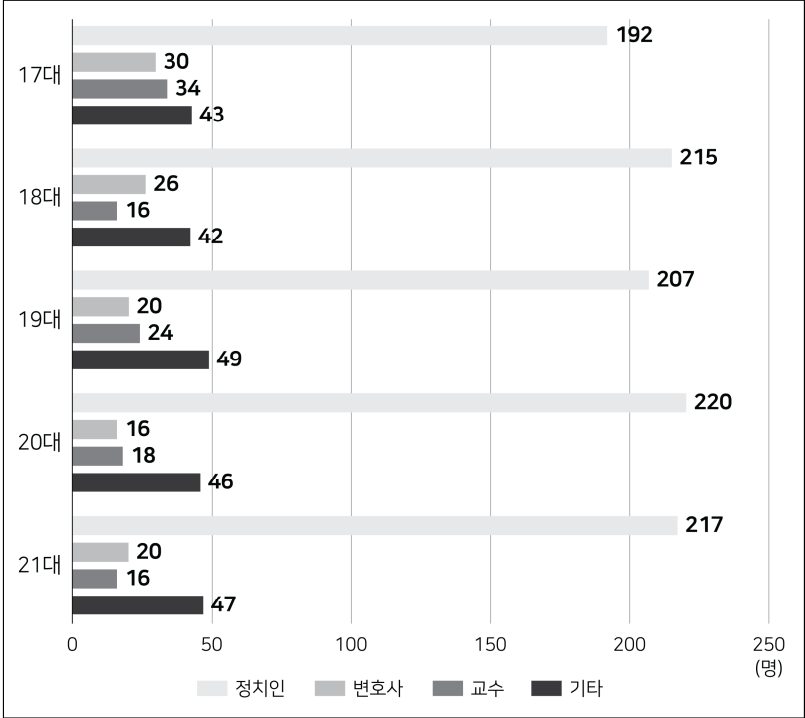
② 20대 및 21대 당선자의 성별 분포

구분	20대 선거		21대 선거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역구	227	26	224	29
비례대표	22	25	19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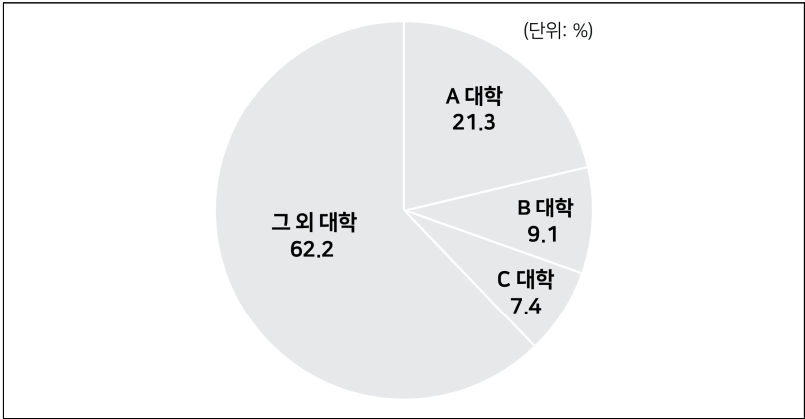
③ 21대 대졸 이상 당선자의 최종 학력별 분포

구분	(단위: 명)				전체
	대졸	대학원 재학	대학원 수료	대학원 졸업	
지역구	101	1	23	128	253
비례대표	12	4	1	30	47

④ 17 ~ 21대 당선자의 직업별 분포



⑤ 21대 대졸 이상 당선자의 출신대학 구성비



[31 ~ 32] 다음 <표>는 A ~ D기업의 2022년 8월 첫째 주의 주간 소비자 불만 신고 건수에 대한 각 기업의 요일별 편차를 산출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표> A ~ D기업의 주간 소비자 불만 신고 건수의 편차
(단위: 건)

기업 \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	-1	0	(가)	-1	-1	1	-1
B	-1	2	0	-1	(나)	0	(다)
C	1	(라)	2	-1	-2	(마)	1
D	(바)	2	1	-5	1	0	-1

- ※ 1) 편차 = 해당 기업의 해당 요일 신고 건수 - 해당 기업의 8월 첫째 주 하루 평균 신고 건수
2) 각 기업의 한 주간 편차의 합은 0임.
3) 한 주간 편차 제곱의 합은 A기업과 B기업이 같고, C기업과 D기업이 같음.

31. 위 <표>를 근거로 ‘가’ ~ ‘바’에 들어갈 값 중 최솟값과 최댓값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최솟값	최댓값
①	-4	3
②	-4	4
③	-3	3
④	-3	4
⑤	-2	2

32. 위 <표>와 아래 <조건>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 건>

○ A기업의 월요일 신고 건수는 2건이다.

○ B기업의 화요일 신고 건수는 A기업의 토요일 신고 건수의 2배이다.

○ C기업의 일요일 신고 건수와 D기업의 화요일 신고 건수는 같다.

○ D기업의 신고 건수가 가장 적은 요일의 신고 건수와 B기업의 목요일 신고 건수는 같다.

<보 기>

ㄱ. A기업의 신고 건수가 4건 이상인 날은 3일 이상이다.

ㄴ. B기업의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6건이다.

ㄷ.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D기업이 C기업보다 많다.

ㄹ. A기업과 B기업의 하루 평균 신고 건수의 합은 D기업의 하루 평균 신고 건수보다 적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3. 다음 <표>는 2018 ~ 2021년 ‘갑’국의 가구수 및 반려동물 보유가구 현황과 관련 시장 매출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갑’국 가구수 및 반려동물 보유가구 현황
(단위: 천 가구, %, 마리/가구, 천 마리)

구분 \ 연도		2018	2020	2021
가구수		17,495	18,119	19,013
개	보유가구 비중	16.3	16.0	19.1
	보유가구당 마릿수	1.47	1.38	1.34
	총보유 마릿수	4,192	()	6,318
고양이	보유가구 비중	1.7	3.4	5.2
	보유가구당 마릿수	1.92	1.70	1.46
	총보유 마릿수	571	1,047	2,425
전체	보유가구 비중	17.4	17.9	21.8
	보유가구당 마릿수	1.56	1.56	1.54
	총보유 마릿수	4,763	5,048	8,743

- ※ 1) ‘갑’국의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뿐임.
2)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중(%) = $\frac{\text{반려동물 보유가구수}}{\text{가구수}} \times 100$

<표 2> 2018 ~ 2021년 반려동물 관련 시장 매출액
(단위: 백만 원)

구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사료	385,204	375,753	422,807	494,089
수의 서비스	354,914	480,696	579,046	655,077
동물 관련 용품	287,408	309,876	358,210	384,855
장묘 및 보호 서비스	16,761	19,075	25,396	33,848
보험	352	387	405	572
전체	1,044,639	1,185,787	1,385,864	1,568,441

<보 기>

ㄱ. 개의 총보유 마릿수는 2019년에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가 2020년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ㄴ. 반려동물 보유가구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ㄷ. 2018년 대비 2021년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수의 서비스’이다.

ㄹ. 2019년 반려동물 한 마리당 ‘동물 관련 용품’ 매출액은 7만 원 이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4. 다음 <표>는 ‘갑’국 A ~ J 지역의 시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갑’국 시의원 지역별 성별 후보자 및 당선자 수
(단위: 명)

구분 지역	성별	후보자		당선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체		120	699	17	165
A		37	195	8	36
B		12	64	1	18
C		7	38	1	11
D		9	50	2	12
E		5	34	0	10
F		4	19	0	6
G		34	193	4	47
H		7	43	0	12
I		3	50	1	10
J		2	13	0	3

- ※ 1) 여성(남성) 당선율 = $\frac{\text{여성(남성) 당선자 수}}{\text{여성(남성) 후보자 수}}$
- 2) 후보자(당선자) 성비 = $\frac{\text{남성 후보자(당선자) 수}}{\text{여성 후보자(당선자) 수}}$
- 3) 후보자(당선자) 성비는 여성 후보자(당선자)가 있는 지역만 대상으로 산출함.
- ① 전체 남성 당선율은 전체 여성 당선율의 2배 이하이다.
- ② 여성 당선율이 남성 당선율보다 높은 지역은 2개이다.
- ③ 당선자 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A이다.
- ④ 후보자 성비가 10 이상인 지역은 I뿐이다.
- ⑤ 여성 후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의 여성 당선율은 남성 후보자가 가장 적은 지역의 남성 당선율보다 높다.

35. 다음 <표>는 ‘갑’ 마을의 2013 ~ 2022년 인구 및 가구 변화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인구 및 가구 변화
(단위: 명, 가구)

연도	구분	남성 인구	여성 인구	외국인 인구	고령 인구	가구
2013		209	184	21	30	142
2014		249	223	22	34	169
2015		271	244	24	37	185
2016		280	252	26	38	190
2017		287	257	27	40	193
2018		289	261	25	42	196
2019		294	264	28	44	198
2020		303	270	32	46	204
2021		333	297	33	47	226
2022		356	319	35	53	246

- ※ 총인구 = 남성 인구 + 여성 인구
- ① 가구당 여성 인구는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하였다.
- ② 전년 대비 2022년 고령 인구 증가율은 전년 대비 2022년 총인구 증가율보다 높다.
- ③ 전년 대비 외국인 인구가 감소한 해와 전년 대비 총인구 증가폭이 가장 작은 해는 같다.
- ④ 전년 대비 총인구 증가율은 2014년이 가장 높다.
- ⑤ 전년 대비 가구 수 증가폭이 가장 큰 해와 전년 대비 남성 인구 증가폭이 가장 큰 해는 같다.

36. 다음 <표>는 2017 ~ 2021년 ‘갑’국의 청년 창업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표>를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로 옳지 않은 것은?

<표 1> 연도별 청년 창업건수 현황 (단위: 건)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청년 전체	228,460	215,819	208,260	218,530	226,082
남성	150,341	140,362	120,463	130,532	150,352
여성	78,119	75,457	87,797	87,998	75,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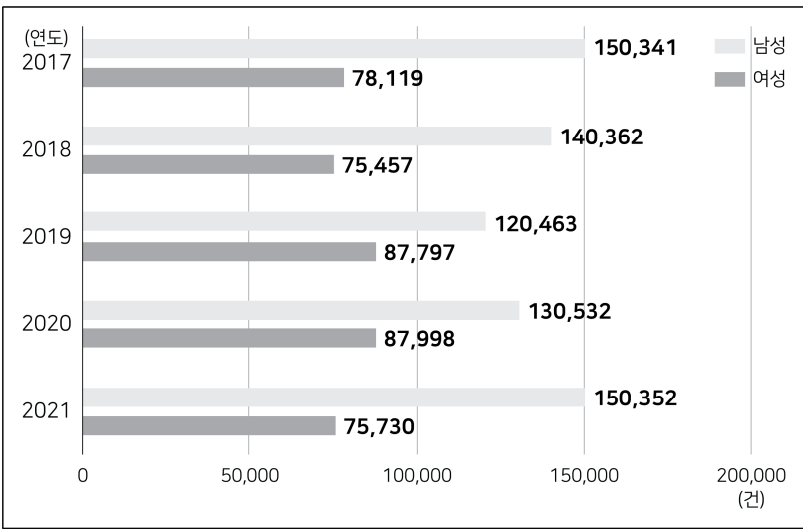
<표 2> 2021년 청년 창업건수 상위 10개 업종의 성별 창업건수 현황 (단위: 건)

순위	업종	남성 창업건수	여성 창업건수	합
1	통신판매업	30,352	20,351	50,703
2	숙박·음식점업	29,352	9,162	38,514
3	상품중개업	18,341	6,365	24,706
4	온라인광고업	6,314	5,348	11,662
5	정보통신업	5,291	4,871	10,162
6	부동산업	5,433	4,631	10,064
7	운송 및 창고업	3,316	2,201	5,517
8	교육서비스업	3,021	2,472	5,493
9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53	1,377	2,430
10	제조업	992	472	1,464
계		103,465	57,250	160,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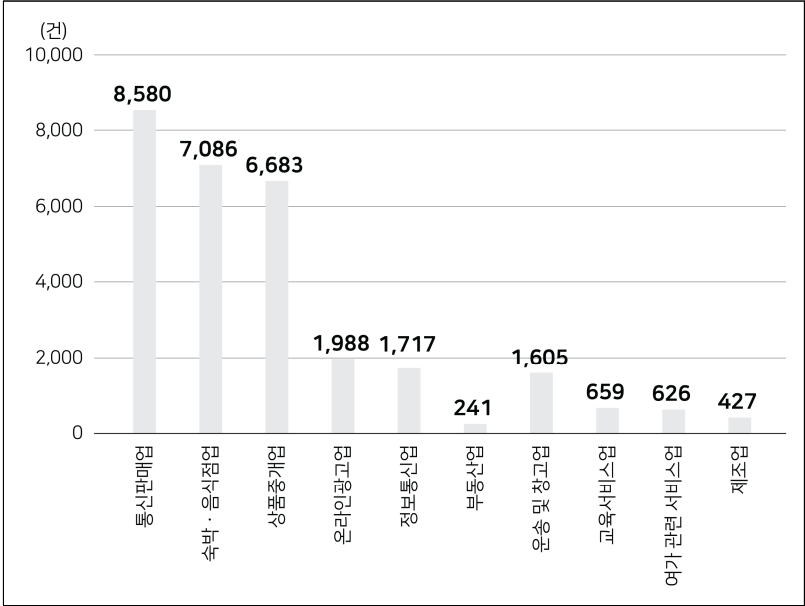
<표 3> 2017 ~ 2020년 10개 업종별 청년 창업건수 현황 (단위: 건)

업종 \ 연도	2017	2018	2019	2020
통신판매업	42,123	51,321	55,123	47,612
숙박·음식점업	31,428	39,212	46,121	49,182
상품중개업	18,023	14,921	10,982	20,761
온라인광고업	9,945	8,162	9,165	8,172
정보통신업	8,174	7,215	6,783	6,943
부동산업	9,823	7,978	7,152	6,987
운송 및 창고업	7,122	6,829	6,123	5,931
교육서비스업	6,119	5,181	5,923	4,712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89	2,987	3,621	4,981
제조업	1,891	1,523	2,012	1,723
합계	137,737	145,329	153,005	157,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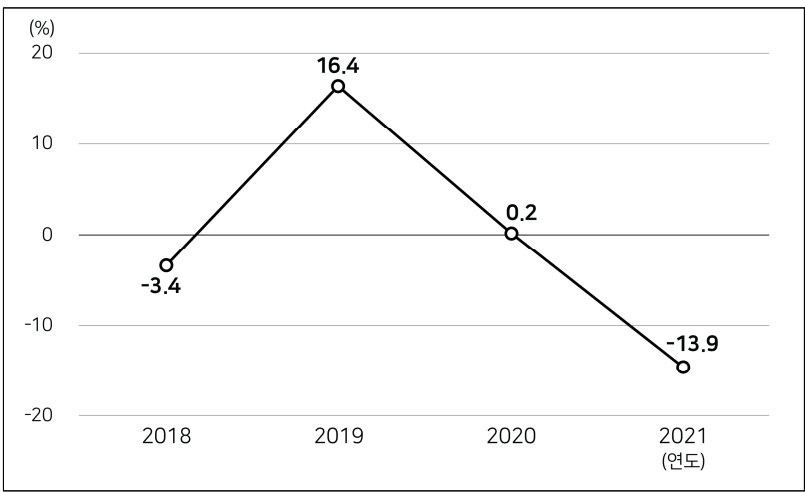
① 연도별 성별 청년 창업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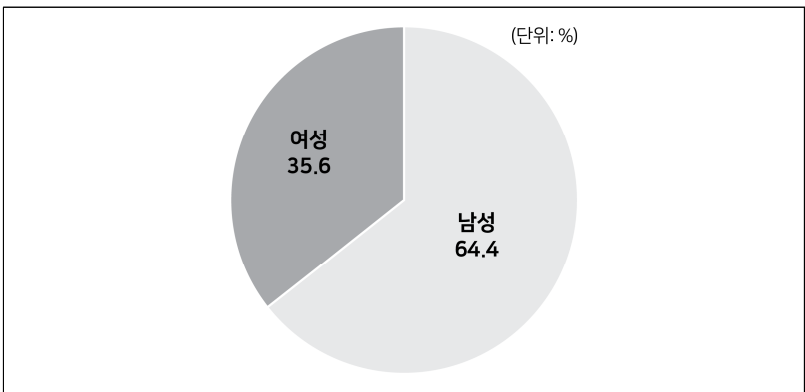
② 2021년 청년 창업건수 상위 10개 업종의 2017년 대비 창업건수 증감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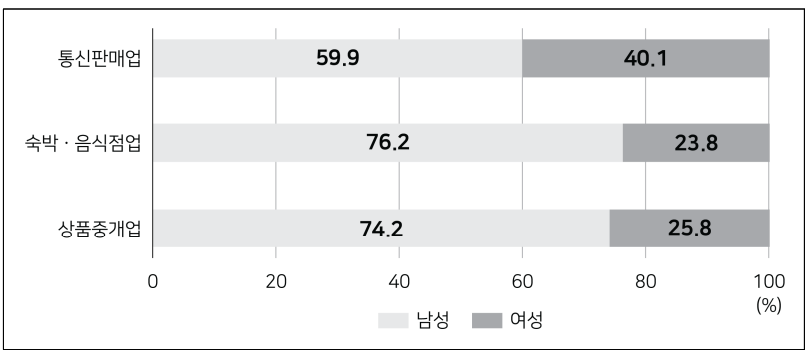
③ 여성 창업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



④ 2021년 청년 창업건수 상위 10개 업종의 성별 창업건수 구성비



⑤ 2021년 청년 창업건수 상위 3개 업종의 성별 창업건수 구성비



37. 다음 <표>는 ‘갑’국의 교역대상국(A ~ F)별 2022년 7월 해상 수출 및 수입 운송비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22년 7월 해상 수출 및 수입 운송비용
(단위: 백만 원, %)

구분 교역 대상국	수출			수입		
	운송비용	전월 대비 증가율	전년 동월 운송비용	운송비용	전월 대비 증가율	전년 동월 운송비용
A	14,077	-0.1	9,734	3,298	-6.3	2,663
B	14,337	-5.2	8,744	3,141	14.7	1,762
C	13,103	-3.7	8,352	2,335	9.5	2,307
D	1,266	5.2	1,006	2,991	5.8	2,093
E	1,106	3.7	1,306	1,658	9.7	1,017
F	2,480	5.9	1,190	2,980	2.8	1,997

<보 기>

- ㄱ. 2022년 7월 수입 운송비용은 각 교역대상국에 대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 ㄴ. 2021년 7월 수출 운송비용이 많은 교역대상국일수록 2022년 7월 수출 운송비용도 많다.
- ㄷ. 2022년 7월, 수입 운송비용의 전월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교역대상국과 수입 운송비용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교역대상국은 같다.
- ㄹ. 2022년 6월, 수출 운송비용이 수입 운송비용보다 많은 교역대상국은 2개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8. 다음 <표>는 1936 ~ 2022년 필즈상 수상자의 최종 박사학위 취득 대학에 관한 자료이다. 필즈상 수상자의 최종 박사학위 취득 대학 중 수상자가 1명인 대학의 수는?

<표 1> 필즈상 수상자의 최종 박사학위 취득 대학의 소속 국가별 현황
(단위: 개, 명)

순위	대학 소속 국가	대학 수	필즈상 수상자 수
1	미국	7	21
2	프랑스	7	12
3	영국	4	8
4	러시아	3	6
5	독일	2	4
6	스위스	1	3
⋮	⋮	⋮	⋮
전체		34	65

- ※ 1) 필즈상 수상자 수가 많을수록 순위가 높음.
- 2) 필즈상 수상자는 모두 박사학위자이며, 중복수상자는 없음.

<표 2> 최종 박사학위 기준 필즈상 수상자를 3명 이상 배출한 대학 현황
(단위: 명)

대학명	대학 소속 국가	필즈상 수상자 수
프린스턴	미국	7
하버드	미국	6
모스크바	러시아	4
케임브리지	영국	4
본	독일	3
제네바	스위스	3
ENS	프랑스	3

- ① 16
- ② 17
- ③ 18
- ④ 19
- ⑤ 20

39. 다음 <표>와 <설명>은 2020년 ‘갑’국 A~H 지역의 코로나19 지원금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근거하여 A~H 지역 중 현금 방식의 지급 가구수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과 다섯 번째로 많은 지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표 1> A~H 지역별 전체 가구수와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총액
(단위: 천 가구, 억 원)

구분\지역	A	B	C	D	E	F	G	H
전체 가구수	4,360	1,500	1,040	1,240	620	640	470	130
지급총액	25,700	9,200	6,600	7,900	3,900	4,000	3,100	900

<표 2> 지급 방식별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가구수
(단위: 천 가구)

지급 방식\지역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현금	합
A	20	570	3,050	()	()
B	10	270	920	240	1,440
C	90	140	()	()	1,010
D	()	0	810	()	1,210
E	110	0	410	()	()
F	10	20	500	70	600
G	0	80	330	()	450
H	0	10	()	()	130

※ 각 가구는 1가지 지급 방식으로만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받음.

<설 명>

- A는 전체 가구수 대비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가구수 비율이 92.9%이다.
- 지역별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가구수 대비 신용·체크카드 방식의 지급 가구수 비율은 H가 84.6%로 가장 높고, C가 62.4%로 가장 낮다.
- D는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가구수 대비 상품권 방식의 지급 가구수 비율이 21.5%이다.
- E는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가구의 평균 지원금이 65만 원이다.

세 번째로 많은 지역

다섯 번째로 많은 지역

- | | | |
|---|---|---|
| ① | B | E |
| ② | B | F |
| ③ | C | E |
| ④ | C | F |
| ⑤ | D | E |

40. 다음 <표>와 <정보>는 2021년과 2022년 A 기업의 전체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발생 위험도를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이를 근거로 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종합위험도 평가 결과
(단위: 명)

구분 \ 연도 갑질 발생 위험도		2021					2022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전체		770	78	49	45	58	790	121	33	31	25
성별	남성	320	38	24	15	18	336	55	10	11	3
	여성	450	40	25	30	40	454	66	23	20	22
직급	관리자	180	11	4	2	3	185	15	4	4	2
	실무자	590	67	45	43	55	605	106	29	27	23
소속	본사	70	9	5	5	6	80	11	4	3	2
	공장	700	69	44	40	52	710	110	29	28	23

<표 2> 갑질 유형별 평가 결과
(단위: 명)

연도 갑질 유형		2021					2022				
		갑질 발생 위험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언어		747	85	50	53	65	770	120	35	44	31
부당한 지시		788	78	43	38	53	810	127	25	21	17
불리한 처우		781	73	52	41	53	795	117	37	27	24

<정 보>

- 2021년과 2022년 설문조사 대상자는 같으며, 무응답과 중복응답은 없음.
- 2021년 실무자의 절반은 여성임.
- 각 설문조사에서 ‘부당한 지시’의 갑질 발생 위험도를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언어’와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도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답변함.

<보 기>

- ㄱ. 2021년 여성 관리자는 185명이다.
- ㄴ. 소속이 본사인 직원은 2022년이 2021년보다 5명 많다.
- ㄷ. ‘부당한 지시’의 갑질 발생 위험도를 ‘매우 낮음’, ‘낮음’ 또는 ‘보통’으로 답변한 응답자 중 ‘언어’의 갑질 발생 위험도를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2021년이 2022년보다 많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